

지역 소식

“이스라엘을 집합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지속되는 선교 사업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태로 서로에게 잘 가라고 인사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대신, 주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에서 온 선교사 101명이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서울 선교부 회장의 아내인 앤 테일러 자매가 전한 말이다.

서울, 서울 남,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은 2월 21일부터 제일회장단의 지침에 따라 선교사 숙소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약 2주 후인 3월 7일에는 해외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해외에서 봉사하던 한국인 선교사들은 국내로 돌아왔다.

이제 각 선교부에서는 40명 내외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매일 밤 하루를 마칠 때 화상 회의를 열어 서로 간증을 나누기도 하며 신앙을 확고히 한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선교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선교 사업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충실히 쏟고 있다.

계속해서 계시로서 인도되다

“처음에는 그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울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오의철 장로는 당시를 회상했다. 미국에서 봉사하던 당시 그는 그동안 길거리 전도나

가정 방문, 회원 방문 등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웃들을 찾곤 했지만, 코로나19로 귀국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만 같았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교회 건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선교사들은 걱정이 앞섰다.

오 장로와 동반자는 함께 주님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경건하게 주님의 계시를 구했다. 얼마 후에 자신들의 앞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크게 들어왔고, 휴대폰을 열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에 나오는 원리들을 기초로 하여 전화를 받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전화로 복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는 주님의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 선교부 어유진 자매 선교사는 이렇게 전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가 선교 사업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능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다

코로나19 이후 페이스북을 접속해 보면 여러 선교사들의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자가 격리된 선교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자작곡 연주, 찬송가 중창, 악기 연주, 재치 있는 영상 등으로 복음 메시지와 간증을 전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히 이웃들의 관심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일상을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하고,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 선교부에서 영상 편집을 돕고 있는 윤영도 장로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재능들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편집 과정에서도 매번 행복함을 느낀다.”라며 새로운 방식을 통한 선교 사업의 기쁨을 나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영어 회화 반도 온라인으로 재개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봉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교사들은 귀환 조치되었다. 그중 일부 외국인 귀환



위 사진: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 공항에 들어서는 모습

선교사들이 영어 회화 반을 지속하고 있으며, 회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회원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다

미국에서 봉사하다가 갑작스레 귀환하게 된 서울 동 스테이크 김예지 자매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군 복무 중이었던 오빠의 도움으로 국내에 거주할 집을 구했다. “갑자기 귀환하게 되어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회원인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에 참여하면 한계가 있더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선교부에서 영어 회화 온라인 방송을 돕고 있는 김유겸 장로는 이렇게 전한다. “귀환한 선교사들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만났던 이웃들로부터 인사 메시지를 받을 때면 더 큰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김혜민 자매와 원이화 자매 선교사는 “평소 오프라인 영어 회화 반에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온라인 영어 회화 반에 회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선교사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숙소에서 온종일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낙담하는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부산 선교부 송유진 자매 선교사는 얼마 후에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원들과도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어떤 교회 회원 분께서, 꺼져 가던 신앙의 불빛이 선교사들과의 복음 토론을 통해 다시 타올랐고 토론 시간이 기대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결코 좌절되지 않으며 멈추지도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MTC(선교사 훈련원)의 시작이다.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등 해외에만 있는 MTC에 갈 수 없게 된 선교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동일한 훈련을 받았다. 참고로 해외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온라인 MTC를 마치고 국내 선교부에서 임시로 봉사를 시작했다.

온라인 MTC를 마치고 임지에서 봉사 중인 경기 스테이크의 윤소은 자매는 이렇게 소감을 전한다. “집에서 MTC 과정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보 MTC가 어떤 곳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토론 연습을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었는데, 저는 첫번째 시현에 대한 더욱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MTC 교사인 남나래 자매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들을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유혹과 방해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 선교사 생활과 목적에 따라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터인데도 우리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신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도 교사로서 제한된 환경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산 선교부 박승혁 장로는 “최근 온라인 선교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선교 사업을 위한 노력과 회원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코로나19 이전과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시대에 발맞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회원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간단한 참여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공감 버튼이나 댓글을 달아 주실 때 더 많은 게시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



위 사진: 온라인 MTC 중 일부 선교사들의 모습. 해당 분반은 지난 5월 1~18일에 진행되었다.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조각하여

지난 4월 4일에 열린 제190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권영준 형제가 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았다.

권영준 장로는 1970년 10월 14일에 대구에서 출생하였으며, 1975년에 개종한 부모님을 따라 1979년에 회원 자녀로서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1993년에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해군 법무장교로 복무한 뒤 1999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2006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직을 두 차례 역임하였다. 그는 아내 이연신 자매와 1995년에 서울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교회 내에서 전임 선교사,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단 보좌, 감독 등으로 봉사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울 남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아 약 6년간 봉사하였다.

권 장로는 지역 칠십인이라는 부름을 통해 성장하고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낀다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부름에 높고 낮음은 없지만, 지역 칠십인 같은 부름은 더 많은 회원에게 노출됩니다. 그만큼 회원들에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름은 성장과 봉사의 기회입니다. 그 점만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권 장로는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 몇 가지를 나누었다. “첫째,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세를 낮추는 것의] 온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해 보려 합니다. 둘째,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삶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꼭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개인과 교회의 어려움을 성장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배우며 나누고 싶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역 칠십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값진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탈종교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시달리게지요. 이

도전적 상황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묵묵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권 장로는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한 비전을 묻는 질문에 “주님과 선지자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답하면서 그 비전을 좀 더 잘 이루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키워드는 ‘구체화’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복음 원리는 아름답지만, 진흙탕 같은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더 큰 생명력을 얻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추상적 구호로서의 복음 원리만 말로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 계획과 행동으로 옮기려는 치열한 노력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키워드로 ‘조직화’를 강조했다. “주님께서 여러 물질을 조직하여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정하신 틀 내에서 조직을 통한 크고 작은 창조를 지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원들의 신앙, 열정, 재능을 잘 파악하여 이를 잘 조직함으로써 시온의 대업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생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조각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소망한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 드릴 영혼을 조각하기 위해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조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과 기쁨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생활이 힘들지만 기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명품 영혼을 가지고 돌아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힘들지만 기쁩니다. 지금 제 영혼의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신앙을 행한다면 제 영혼이 조금이나마 명품 영혼에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



2019 A/C(아시아 연방 청년 대회)에 회원 자녀로 침례받은 권영준 장로와 아내 이연신 자매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14명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부름받은 몇몇 선교사들은 국내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함)



권혜림 자매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남희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임시: 서울 남
선교부)



김선택 장로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수현 자매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캐나다 에드먼턴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김준현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박준현 장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설진주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뉴욕 뉴욕시티 선교부
(임시: 부산 선교부)



윤소은 자매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이고운 자매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이성호 장로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
(임시: 서울 남
선교부)



이혜빈 자매
광주 스테이크
나주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장하안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주충선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강북1 와드
부산 선교부



황재하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애리조나 길버트
선교부
(임시: 서울 남
선교부)

『성도들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출판

『성도들』 제1권, 진리의 표준,에 이어, 『성도들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가 2020년 4월에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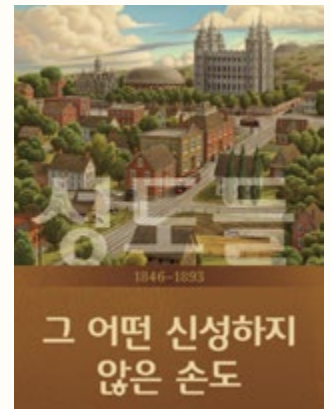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 쓴 신간, 『성도들』의 두 번째 책이다. 제일회장단의 지시로 신속한 진행과 세심한 조사를 거쳐 쓰인 『성도들』은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교회의 유익[과] 일어나는 세대들”을 위해(교리와 성약 69:8) 역사를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환이기도 하다.”(『성도들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표지 인용)

이 책은 회복 이후 초기 성도들이 나무를 떠나 시온에 도착하여 시온을 건설한 1846~1893년까지의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성도들이 나무에서 추방된 이후에 미국 서부로 모이면서 겪은 시련들로 시작하여 1893년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을 끝으로 책이 마무리된다.

이 책은 실제 사건을 엮어 이야기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서술하여 읽는 이들의 흥미를 돋운다. 초기 성도들의 역사를 간접 경험하며 독자들이 교회 역사를 한층 가깝게 느끼도록 돕는 동시에, 등장 인물들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이를 투영하여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찰하도록 돕는다.

『성도들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는 배부 센터를 통한 전화 주문 및 교회 온라인 스토어(store.churchofjesuschrist.org/) 주문이 가능하며, 권당 6,700원이다. ■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부분):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